



광주출신 소설가 이화경 '사랑하고 쓰고 파괴하다'

내 삶이 힘들고 외롭고 바닥일 때 그녀들은 위로와 지혜를 선물했다



버지니아 울프·한나 아렌트 등 청춘을 매혹시킨 열 명의 여성 작가들 삶과 문학 조명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 나게 외로울 때, 어떤 경계에서 미쳐가고 있다고 느낄 때, 끝없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낄 때,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할 때... 그녀들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지혜를 선물 해주었다.”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알려주는 존재가 있다면 구원 받는 기분일 것이다.

광주 출신 이화경(52·사진) 소설가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안이 되어 준 여성 작가 열 명의 삶과 문학을 조명해 예제 이집을 펴냈다. “청춘을 매혹시킨 열 명의 여성 작가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제목만으로도 눈길을 잡아끈다. ‘사랑하고

쓰고 파괴하다’(행성B일세)에는 생 전체를 걸고 파파커린 여성 작가 10인의 삶과 문학이 담겨 있다.

당초 책은 지난 2011년 ‘버지니아 울프와 밤을 새다’로 발간돼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에 출판사를 달리해 선보이는 것은 “새로운 언어로 불가능한 것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열 명의 작가”들이 혼란하고 불안한 우리시대에도 여전히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책에는 “불쭙불쭙 치밀고 올라오는 불안과 채울 길 없는 결핍과 알 수 없는 갈망에 미칠 것 같았던” 서른 살에 일기해보고 바흐만의 ‘삼십 세’를 읽고 위로받은 이야기, 글을 쓰는 노동으로 돈을 벌고 싶었던 시절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통

해 힘을 얻었던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저자가 호명한 열 명의 작가는 공통적으로 시대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당대의 아웃사이더들이었다. 수전 손택, 한나 아렌트, 로자 룩셈부르크, 시몬 드 보부아르, 잉게보르크 바흐만, 버지니아 울프, 조르주 상드, 프랑수아즈 사강, 실비아 플라스, 제인 오스틴은 공통적으로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 갇혀 있었기를 거부했다.

그 대가로 삶은 녹록지 않았고 더러는 가혹했다. 실비아 플라스는 “여자로 태어난 게 나의 끔찍스러운 비극”이라고 말했다. 정도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나는 혼자다. 사람들은 나를 증오한다. 따라서 내가 옳다”며 노동자계급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저자가 조명하는 여성 작가들은 페미니즘 관점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사실 근자에 붙었던 페미니즘은 단순히 유행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저마다 후보들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출판계나 영화계에서는 페미니즘 콘텐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여성혐오적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한편 이 작가는 “그들의 불꽃 같은 영혼이 내 허약한 마음에 광 부딪히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며 “언제나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그들의 전후적인 생을 표현하기에는 나의 언어가 너무 무뎠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겨우겨우 더듬더듬 썼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서울 덕수궁 인근에 자리한 서울 시립미술관을 방문할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다. 미술관 2층에 꾸며진 ‘천경자 갤러리’이다. 그동안 일주 3~4번 둘러본 것 같은데 그때마다 감동의 지점이 달랐다. 어떤 날은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년 작)에 필이 꽃혔는가(?) 하면 다른 날은 그녀의 화구(畫具) 앞에서 발길이 떠나지 않았다.

천경자(1924~2015)화백의 컬렉션이 서울시립미술관에 동지를 틀게 된 건 그녀의 기증 덕분이다. 고향출신인 천 화백은 서울시가 자신의 ‘분신’들을 잘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난 1998년 작품

미술관 명예관장)씨가 지난 93년 212점을 시작으로 20여 년에 걸쳐려는 곳이다. 미술관 2층에 꾸며진 ‘천경자 갤러리’이다. 그동안 일주 3~4번 둘러본 것 같은데 그때마다 감동의 지점이 달랐다. 어떤 날은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년 작)에 필이 꽃혔는가(?) 하면 다른 날은 그녀의 화구(畫具) 앞에서 발길이 떠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여인상’, 살바도르 달리의 ‘초콜릿의 나날들’, 앤디 워홀의 ‘모택동’은 미술사적 가치가 큰 작품이다. 특히 일본 모노파(物派)의 창시자인 재일교포 이우환(78)화백의 ‘선으로부터’ 등 1970~2010년대 작

반갑다! 하정웅 미술관

93점을 내놓았다. 그녀의 믿음대로 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 2002년 국내 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작가의 이름을 딴 70평 규모의 갤러리와 전담 학예사를 배치하는 등 ‘VIP 예우’로 보답했다. 또한 매년 상설 기획전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그녀의 예술세계를 널리 알리는 문화 명소로 키우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천경자 컬렉션이 있다면 광주시립미술관에는 ‘하정웅 컬렉션’이 있다. 하지만 어렵게도 컬렉션의 위상은 사뭇 다르다.

물론 미술품의 경중을 따진다든가 게 적절치 않지만 적어도 인지도만 따지면 ‘극과 극’이다. 천경자 컬렉션이 국내외에서 ‘통하는’ 브랜드인데 반해 하정웅 컬렉션은 광주시민들조차 ‘존재’를 아는 사람이 적어서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그 작품들이 미술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조명되지 않은 탓이다.

하정웅 컬렉션은 영암출신 재일교포 사업가 하정웅(77·광주시립

품 36점과 백산 등 외국작가들의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은 하정웅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다.

드디어 광주에 하정웅 컬렉션을 상설 전시하는 ‘하정웅 미술관’(옛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하씨가 광주와 인연을 맺은 지 꼭 24년 만의 일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하정웅 컬렉션의 진수를 연중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마침 개관 기념으로 이우환 화백의 40년 예술적 발자취를 조명하는 ‘이우환’전(3월3~6월25일)이 열린다. 이 화백은 소더비, 크리스티 등 국제 경매시장에서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세계적인 작가다.

새봄이 오는 길목, 모처럼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면 어떻게, 분명 그 어느 해보다 화사하고 특별한 봄나들이로 기억될 것이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목요일은 공연 관람하는 날.’

광주아트홀(광주시 동구 황금동)이 진행하는 ‘2017 문화 페스티벌-공연 보는 날’ 첫 행사가 열린다.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광주아트홀은 소극장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예술 단체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장을 무료 대관하는 공모 프로젝트를 진행, 모두 15개팀을 선정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퓨전양상블 ‘BLANC’, ‘테더링의 개그콘서트’, ‘시와 바람, 모꼬지’ 등이 연말까지 모두 42회 공연을 진행한다.

첫 무대를 장식하는 팀은 박영렬 재즈 퀸텟이다. 지난 2008년 창단한 박영렬 재즈 퀸텟은 전통 스탠드 재즈에서부터 뮤지컬 음악까지 다양한 색채의 재즈 음악을 연

2017 문화 페스티벌-공연 보는 날 첫 행사...2일 광주아트홀

박영렬 재즈 퀸텟 'good bye winter'

주하는 팀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모두 8차례 공연 기회를 얻은 이들은 12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퓨전 재즈 여행’을 진행한다.

오는 2일 오후 7시30분에 열리는 첫 공연의 주제는 ‘good bye winter’다. 전통 재즈, 동요와 가요, 찬송가까지 다

양한 음악을 재즈로 편곡해 들려주는 무대로 레퍼토리는 ‘섬집 아기’, ‘옛사랑’, ‘얼굴’, ‘리구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다보면’ 등이다. 또 마일스 데이비스의 ‘So What’ ‘Cheek To Cheek’, ‘Bend To The Light’ 등도 연주한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리더 박영렬씨를 중심으로 오주석(기타), 박승준(드럼), 이에실·임한나(재즈 피아노), 김기홍·정은송·최유진(보컬)씨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박영렬 재즈 퀸텟은 앞으로 ‘Hatmoniz Only First play list-ost’(4월6일), ‘어린이를 위한 재즈’(5월 4일), ‘고민 필요없는 우리의 이야기’(6월1일), ‘Rejoice Together’(7월6일), ‘song of my life Part.1’(8월3일), ‘아리따운 JAZZ’(9월7일), ‘About Love’(10월12일), ‘permeate’ Music Concert’(11월2일), ‘Romantic jazz’(12월 7일) 등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227-7440. /김미희기자 mekim@kwangju.co.kr

서창전통한옥체험관, 한지공예 기획 강좌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이 생활 창작인을 양성하기 위한 한지공예 기획강좌를 운영한다.

강좌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티슈 커버, 과일소반 등 한지와 전통 문양을 활용한 작품제작기법을 전문 강사의 실기 중심 교육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 수강생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전화로 접수받는다.

한편, 체험관은 올해 ‘찾아가는 전통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규강좌 외에도 테마별 기획강좌, 예절학당, 생태문화기행, 한옥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ymcakwangju.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373-136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BS 바이블칼리지

동행사 조병호의 Tong Bible School

통통성경학교

CBS 바이블칼리지 통통성경학교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통통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성경학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쉽고,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성경 66권 전체를 편편화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순 100강의 + 성경과 5대제국 20강의(스페셜)

-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 조병호 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 성경의 역사, 지리, 문화, 신학을 모두 통통으로 공부합니다.
-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통통(1독) 합니다.
- 누구나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일대일 인터넷 강의입니다.
- 성경을 체험하고 성경으로 행복해집니다.
- 5세 자녀에게 성경을 통통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게 됩니다.
- CBS와 통통원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수료증(Certificate)이 제공됩니다.

수료증

종교개혁 500주년 Sola Scriptura!

CBS 바이블칼리지!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 조병호 박사

통통성경 Story 인터넷 100강의! cbsbible.co.kr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통통으로 공부합니다.

Study the whole Bible in a balanced way using the Tong method.

강사소개 - 통통박사 조병호

세계적인 성경학자, 밀리언셀러 저자,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비텐베르크 스피커

통독원 원장, 하이기독교회 담임, 미국 드루대학교(Drew University) 객원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Th.B. 신학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교역학석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Th.M. 조직신학, 신학석사),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대학원 (Th.M. 선교신학, 신학석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Ph.D. 역사신학, 철학박사)

베스트셀러 「성경과 5대제국」 - 2011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성경통독」 - 2005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창세기 성경통독」 - 2009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우수상 수상

주요저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과 고대전통」 「성경과 고대정치」 「신구약 중간사」 「통성경 길라잡이」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와우! 예레미야 70년」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 100년사 산책」 「消失의帝國」 - (中國 團結出版社 / 성경과 5대제국 전문판) 등 30여 권.

편찬 「역사순 일년일독 통통성경」 「역사순 통통성경」

PC : cbsbible.co.kr | 모바일 : m.cbsbible.co.kr

회원가입 ▶ 수강신청 ▶ 등록절차에 따라 진행 ▶ 결제 ▶ 결제승인 후 등록 완료 ▶ 강의 교재 발송 & 강의 동영상 오픈

계산란 문의 : 회원가입 ▶ 고객센터 ▶ 문의하기 / 전화 문의 : CBS바이블칼리지 T.02-2650-7800, 7801 / 교육비 : 30만원 (주교재 포함)

CBS

Media Group